

캐나다에서 바라본 美 대선, 그리고 기사감

북대서양조약기구인 NATO 정상회의 (7.10~11)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은 3년째 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일정 중 G7 회원국이자 미국의 정보 동맹국(Five Eyes)인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도 정상회담(7.10)을 가졌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통해 북대서양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다짐하며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가 안보협력의 창구가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가치를 달리하는 진영에 대한 파트너 국가 간의 전략적 연대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문제는 가치공유국 그룹 내에서 힘의 차이가 명확한 국가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즉 미국과 같이 여타 동맹국들과의 진영 질서를 주도하는 경우, 동맹 진영내에서 대국을 상대로 스크림을 짜(scrimmage) 연대하는 식의 해법은 불가능에 가깝다. 美 대선을 3개월여 앞둔 현재,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라는 점 외에 국가탄생의 배경도 지리적 역학도 다른 한-캐 두 국가가 처한 현실에서 유사한 속사정을 엿볼 수 있다. 어쩌면 미국의 영향권 하의 이웃국가들에게 美 대선과 관계된 불가촉성능은 북대서양군사협력보다도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두려움일지 모른다.



한기호의 한반도 리뷰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실장

NATO 정상회의 이틀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7.13)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건강이상설로 궁지에 몰렸던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7.21)하였고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를 후속 주자로 지명하면서 열세에 놓였던 반트럼프 전선도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그러나 '트럼프 대세론'을 압도할 선거전략은 여전히 부재하다. 푸틴은 이미 트럼프의 러-우 중전계회를 지지하였고(로이터 7.4), 북한도 난지시 대화 재개조건을 제시(조선중앙통신 7.23)하는 등 적대국들로부터도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 캐나다 현지에서도 피습사건 이후 트럼프의 재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영방송 CBC는 물론, 최대 민영방송 CTV까지 연일 이웃국 대선결과가 자국에 미칠 후

폭풍을 보도 중이다. 비트립프계, 친한파로도 알려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언급한 "훌륭한 친구이자 중요한 동맹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바로잡기"가 발단이었다. 수출의 4분의 3을 미국에 의존하는 캐나다 무역구조상, 2018년 트럼프 시기 체결한 NAFTA 2.0 협상(낙농업 개방 등)에 관한 불쾌한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트럼프가 '약속'한 수입품 관세 10% 부과 가능성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더 언론은 캐나다인들에게 11월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을 탈 준비가 되었는지 거듭 자문하면서 결국 자담하지 못함을 고집하고 있다.

어딘가 모를 기사감이 든다. 한국의 정관계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와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등에 선제적 대응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의 묘책은 없다. 수미타리 美 외교협회(CFR) 연구원의 기소(한국과 연루된) 건 이후 미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대외 접촉도 꺼려 공공외교의 틈새 또한 녹록지 않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RNC) 마지막 날(7.18) 헬크 호건의 셔츠를 찢는 트럼프 후보 지지 연설 장면이 곧 리치에 몰릴 미국의 '훌륭한 친구'들에 대한 메타포는 아니기를 바란다.

대화에는 미소 한 스푼!

어린이의 미소는 참으로 예뻐다. 그 미소 한 번에 많은 이들이 아이를 따라 미소 짓고, 행복해진다. 인간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 이외에 표정, 몸짓, 눈 맞춤, 자세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소통한다. 미국의 인류학자였던 버드휘스텔(R.L. Birdwhistell, 1970)은 인간은 언어로만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 감각을 통해 소통하는 다감각적 존재(multi-sensory being)라고 인식하면서 인간의 표정, 눈 맞춤, 몸짓, 손짓, 자세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의사소통의 65%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 1971) 역시 의사소통에 있어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에는 언어적 요소보다 태도, 표정 등의 시각적 요소와 목소리의 음색, 톤 등에 해당하는 청각적 요소가 9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요소와 함께 행해지며, 상황에 따라 언어적 내용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언어적 요소 중 우리는 가장 먼저 표정을



정은이의 그어소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대화에 있어서 정보를 얻을 때 시각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표정, 몸짓, 손짓, 자세 등의 비언어적 행위는 시각적 정보로, 정보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 중, 표정은 사람의 심리상태 및 변화, 대화에 대한 반응과 인식 등을 나타내는 창구로, 메시지 전달에 있어 언어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 만큼 표정 관리는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 특히, 긍정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진짜 미소'가 가장 중요한 표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거울신경이 있어 상대방의 진짜 미소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

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니 대화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진짜 미소는 어떤 미소일까? 인간이 미소를 지을 때는 광대뼈와 입술 주변 근육을 주로 사용하지만, 진짜 미소는 입술 주변 근육과 함께 눈 주변 근육인 안륜근(眼輪筋)을 사용하게 된다. 19세기 프랑스의 신경심리학자 기욤 뒤센(Guillaume Duchenne)은 이 자연스러운 미소를 처음 관찰하였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Paul Ekman)은 진짜 즐겁고 행복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 눈과 입이 동시에 웃는 진짜 미소, 진짜 웃음을 '뒤센 미소'라고 하였다. 정현숙님의 시 '뒤센미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눈과 입 주변 모두 움직이는 밝은 미소
인위가 아니어서 자연스런 고운 미소
그 미소 만개한 세상, 최고가의 결작품
2024년 파리올림픽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선수들의 멋진 승부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승전보(勝戰報)에 진짜 미소, 함박웃음을 웃을 수 있을 운 마음으로 기원한다.

사설

한동훈 출범, 민생과 국민 우선 정치 기대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성공한 당대표가 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입문 7개월 만에 집권여당의 수장이 됐다. 진작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과정은 예상을 한참 벗어나 치열하고 험난했다.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문자 논란이 벌어져 용산 대통령실과 첨예한 갈등 속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했다. '김여사 문자공방'은 친윤계가 총선패배의 책임을 한 대표에게 돌리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집권당 대표 후보가 대통령실과 맞서는 형국이 연출된 것은 예상 밖이었다. 또한 보수 정치권의 핵심에서 수 십년 정치를 해온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결선투표를 무산시킨 것도 여당 내부의 예상을 한참 벗어났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 유권자들은 왜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을까? 현직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처하는 친윤계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총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지 103일 밖에 안 된 한동훈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을까? 한동훈 대표가 성공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지지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 극한의 대결정치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곧 민생으로 직결돼 국민 삶이 점점 파헤쳐지고 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법인파산 접수가 987건으로 지난해보다 36.3%나 증가한 것이다. 경기침체의 직격

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부채 비율은 114.3%로 2018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1분기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3%로 전년 -1.3%보다 크게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은 전년 -1.5%에서 -6.9%로 악화됐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돌파선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치가 실종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의 성공 여부는 정치 본연의 길로 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國利民福'에 있다. 한 대표가 이를 유념하고 '민생우선 정치'를 복원시킨다면 국민의힘을 살리고 큰 꿈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의 방식은 대화와 타협, 경쟁이어야 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막장정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보여주고 있는 '갈장정치'로는 점점 가속화하고 있는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한동훈 대표를 기다리는 첫 시험대는 '채상병 특검법'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제 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야당 반대와 당 내 반발도 있지만 국민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대화와 타협을 주도한다면 충분히 합의 가능한 일이다.

24일 현충원 참배시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쓴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정치 복원과 이를 통한 민생 회복에 몰두해서 성공한 집권당 대표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경기신문 제2창간 2022년 8월 26일
www.kgnews.co.kr 첫 발행 2002년 6월 15일

문화 가-00224(일간) ISSN 2635-97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김대훈 는설주간 최인숙	인쇄인 박장희 편집국장직대 고태현	인천본사 사장 이한성 인천편집국장직대 정민교
--------------------------------------	-------------------------------------	---

본사 : @16349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대표전화 : 031-268-8114
수원본사 : @16702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대표전화 : 031-268-8645
인천본사 : @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대표전화 : 032-442-8114

광고문의 : 전화 031-268-8330 팩스 031-268-8393
독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시는 원고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31-268-8335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 1,000원
전화 031-257-4459 / 팩스 031-268-8393 / e-mail opinion@kgnews.co.kr

* 외부 기고는 경기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 참언론사인 경기신문에서 독자 여러분의 참신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귀 기울이는 경기신문에 제보를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메인홈페이지(www.kgnews.co.kr) 우측상단에 제보·투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다더 빠른 제보가 가능합니다.

| 제보전화 | | 031)268-8114 , 031)257-4459 |